"외로운 인생이 아닌 위로자의 인생"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5
(전도서 4:1-12)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1922-1994)는 생전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렸던 남편을 두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녀의 첫 남편이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임기 3년만에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처참한 현장을 재클린은 바로 옆 자리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의지했던 시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도 몇년 후 암살을 당하게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그리스에 선박왕이요 당대 최고의 갑부인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물질과 부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호와로운 낭비력으로 인해 두 부부는 자주 별거 생활을 했고 오아시스 죽음 후에 그녀에게 남겨준 유산은 전체 4프로 였습니다. 그 유산으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아들 존 F 케네디 Jr에게 경비행기를 선물로 사줍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 아들마저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겨우 38세에 잃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잭클린은 63세에 림프종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도 부도 그리고 그 누구도 무엇도 그녀에게 참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한 허무한 한 인생의 스토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코헬렛)는 해 아래 진정한 위로자나 위로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 진리를 결국 지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1절은 노예제도 가운데 학대 받는 존재들이 얼마나 눌리는 가운데 위로없이 살고 있는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1절)." 그리고 4절에는 은사와 재주가 많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인생에 대해 상대방적으로 위축이 되고 상처가 되며 시기가 일어나는 인생들에게도 위로가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8절에는 평생 안 먹고 안 쓰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한번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유산을 남겨 줄 자식이 없어 고독한 삶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외로운 인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고령화시대 그리고 저출산 시대 속에 결국 모두가 겪게 될 인생의 끝자락은 '고독'과 '외로움'의 이슈일 것입니다. 내가 애써 달려온 인생의 뒷마당의 끝자락 가운데 그 누구도 위로해 주고 인정해주며 감사와 존경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할 식구들이 없다는 것 만큼 슬픈일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 아래서의 눈물의 인생이기에 참 위로를 찾을 수가 없다는 전도자의 결론적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라 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듯, 마음이 상한자 포로되고 갇힌자 그리고 슬픈자를 위로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아들 예수 그리 스도가 바로 참위로자가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독함을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를 볼 때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눈물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 시는 마음으로 늘 보셨습니다(마 9:36).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과 탄식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의 주님으로 늘 다가 오십니다. **그리고 참 위로자의 이름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위로로 만족하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위로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해 아래서의 위로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더 나아가서 행복하고도 만족스러운 위로자로서의 멋진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한 우리 뉴장의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4년 표어
"한 영혼을 품어 열매 맺는 생명의 공동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8:12)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선 교 회	김성준 목사 (617)949-1118
유 치 부		2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4년 10월 13일

1부 예배 8:00am	2부 예배 10:00am	3부 예배 12:00pm
드림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글로리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신앙고백	사도신경
*기원 Invocation	인도자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35번(시편84편) '#35(Psalms 84)'	기도	김재연 집사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공동체 소식	영상
찬송 Hymn	새458장(통513) "나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Tho' Your Heart May be Heavy'	성경봉독	시편 34:1-10
기도 Prayer	박상우 장로 Elder. Sang Woo Park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4:13-16	설교	**"예배의 본질"** 김성준 목사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 "나의 생명 드리니" (1, 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입례/시간을 뚫고"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내 삶의 주인"	축도	김성준 목사
설교 Preaching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인생"** "A Fleeting Life"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483장(통532)"구름 같은 이 세상" 'Lord, I Care not for Riches'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